

4월26일(월)/사도행전19:8~20

제목: 퇴마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간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매일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8~11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12절). 그런데 어떤 퇴마사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하였다. 이들이 어떤 귀신들린 자 앞에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13절)고 말했다.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퇴마사였는데 그들도 역시 이런 흉내를 내었다(14절). 이 때 즉시 귀신이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고 대꾸했다. 악귀들이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여 기적을 일으켜 보려든 거짓 퇴마사들을 조롱하고 퇴마사들은 망신만 당하고 줄행랑을 쳤다(16절). 이 일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17~18절) 이것은 오직 예수 이름 앞에만 모든 악의 세력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요즘 엑소시스터라는 TV 프로에 퇴마사들이 나온다. 그들은 신의 능력을 통에서 귀신들을 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며 눈속임에 불과하다. 악의 세력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물러가게 할 수 있다.

4월27일(화)/사도행전19:21~22

제목: 휴식을 모르는 바울

바울은 에베소 전도사역을 마친 후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방문 계획을 가졌다(21절) 그러나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나로 보내고 얼마간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다(22절). 그는 에베소 사역의 성공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금을 전달하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여행자가 아닌 선교사로 로마에 가고자 하였다. 그는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이 중심지에 선교의 길을 연다면 훗날 복음의 증인들이 수월하게 이 길을 따라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도 꼭 가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21절)라는 말은 에베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라는 뜻이다. 그는 한곳에서 전도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친 뒤 쉬고 싶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곧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방문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는 끝없이 일을 추진하고 만들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무엇인가 일을 하나 이루고 나면 쉬려고 한다. 우리는 성공하고 나면 휴식을 취하며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 우리는 해가 바뀌면 한번쯤 구역장, 교사, 성가대 봉사를 그만두고 쉬어볼까 생각한다.

4월28일(수)/사도행전19:23~41 (1)

제목: 옛 것은 새 것이 와야만 치워진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에서는 제작하여 파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테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다(24~27절). 급기야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연극장에 감금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신변 안전을 위해 그가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였다(29절).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아데미 신상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아데미 여신의 위신은 곤두박질 쳤다. 복음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흥왕하자 우상은 점차 무력화되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거둔 진정한 복음의 승리였다. 참 승리가 옛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새 것이 나타났을 때 왔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 안에 있는 온갖 그릇된 욕망과 습관들을 제압할 수 있는 비결은 새 생명이 와야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아직도 잔재해 있는 그릇된 옛 욕망과 습관들이 있는가? 그것의 제거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항상 허사로 끝난다. 오직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옛 것은 자취를 감춘다.

4월29일(목)/사도행전19:23~41 (2)

제목: 믿지 않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테메드리오의 선동으로 흥분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궁중심리로 연극장으로 모여들었다(32절). 이 때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된 행정관리인 서기장이 나와서 소동을 진정시켰다. 그는 에베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요사태나 불법 집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에베소에서 대대로 숭배하였던 아데미의 존엄성과 그것을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 세워주면서 군중들을 진정시켰다(36절). 그리고 잡혀온 두 사람이 아데미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아니하였고 아데미 여신을 능멸한 적이 없으니 사법 처리는 할 수 없고 사법 처리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면 민회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였다(37~39절). 서기장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군중들은 해산할 수 밖에 없었고 위기상황은 종료되었다(41절). 서기장은 기독교를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에베소 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독교를 도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합리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궁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저런 심부름을 시키신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4월30일(금)/사도행전20:1~6

제목: 땅 끝까지 마음먹은 바울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1절). 그는 마게나 여러 지방으로 돌면서 제자들을 권면했다.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은 분명히 바울이 제2차전도 여행 당시에 경유한 노정이었을 것이다(2절). 그리고 그는 헬라로 가서 3개월간 머물렀다(3절). 바울은 헬라에서 이미 신앙을 받아드린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주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적자들이 수리아로 가는 해로에서 자기를 암살할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육로를 통해 마게도냐로 향하고자 하였다(3절). 4절에는 바울 일행과 동행한 일곱 명의 명단이 나온다. 이들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대표자들로 추정된다. 바울 일행과 이들은 빌립보에서 잠시 헤어졌으나 5일 후에 드로아에서 다시 회동하였다(5~6절). 바울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그는 결코 시간을 낭비하며 꾸물거리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1절)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쉬지않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그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우리는 땅 끝까지는 고사하고 한 집안의 가족들에게조차 전도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가?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